

‘아담 올러 영입’ KIA, 외인 원투 펀치 구축 완료

연봉 총액 100만달러에 계약
美 오클랜드·마이애미서 활약
변화구 갖춘 우완 파이어볼러
네일과 2연패 도전 동력 전망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호랑이 군단이 ‘우완 파이어볼러’ 아담 올러를 영입했다.

올러는 앞서 재계약을 체결한 ‘투혼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함께 강력한 외인 원투 펀치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타이거즈는 올러와 계약금 20만달러와 연봉 60만달러, 옵션 20만달러 등 총액 10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올러는 1994년생으로 193cm, 102kg의 체격을 지닌 우완 투수다.

올러는 마이너리그를 단계적으로 거쳐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이뤄낸 노력파로 평가받는다. 그는 노스웨스턴 주립대 재학 중이던 2016년 드래프트에서 20라운드(전체 615순위)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지명을 받아 성인 무대에 입성한 뒤 메이저리그에서 세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여덟 시즌을 몸담았다.

2016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에서 루키리그와 로우싱글 A, 싱글 A, 하이싱글 A를 두루 경험한 올러는 방출 통보를 받은 뒤 2019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에서도 싱글 A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9시즌 종료 직후 5드래프트(매년 12월 윈터 미팅에서 열리는 드래



KIA타이거즈가 투수 아담 올러를 영입했다. 올러가 마이애미 말린스 소속이던 지난 9월27일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맞대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AP/뉴시스

프트로 특정 구단이 유망주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 메이저리그 데뷔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에서 뉴욕 메츠의 지명을 받으며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2020시즌 마이너리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는 악재를 겪었음에도 올러는 2021시즌 뉴욕 메츠 산하에서 더블 A와 트리플 A까지 승격하며 가능성을 알렸다.

2022시즌을 앞두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개막 엔트리는 물론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며 메이저리그 데뷔의 꿈을 이뤘지만 2023시즌 도중 트리플 A로 강등된 뒤 웨이버 공시돼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에서 시즌을 마쳤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 계약 신분이 된 올러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산하 트리플

A에서 전반기를 마친 뒤 방출됐고, 마이애미 말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며 재기를 노렸다. 그는 한 달 만에 메이저리그에 콜업돼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부활을 알렸고 시즌 종료 후 다시 자유 계약 신분이 돼 KIA에서 새출발하게 됐다.

올러는 메이저리그 통산 36경기(선발 23경기·구원 13경기)에 등판해 136.1이닝을 소화하며 5승 13패 1홀드와 평균자

책점 6.54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트리플 A를 기준으로 통산 57경기(선발 45경기·구원 12경기)에 나서 242.2이닝을 던지며 21승 9패 2홀드와 평균자책점 5.01을 찍었다.

특히 150km 이상의 직구와 각도가 큰 변화구를 바탕으로 삼진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올러는 KBO 리그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네일과 외인 원투 펀치를 구축할 전망이다. 네일은 지난달 27일 KIA와 계약금 40만달러와 연봉 120만달러, 옵션 20만달러 등 총액 180만달러에 동행을 결정할 바 있다.

네일은 올 시즌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 5패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방어율왕에 등극했다. 지난 8월 강승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을 당하며 정규시즌을 조기 마감했음에도 승률에서 6위, 다승에서는 공동 7위에 오르며 위력을 입증했다.

특히 수술대에 오르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어깨와 팔꿈치 등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고, 한국시리즈 직전 복구에 성공해 두 경기에서 1승과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열두 번째 우승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KIA 관계자는 “올러와 네일이 원투 펀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여덟 경기를 모두 선발 등판하는 등 경험이 많은 선수다.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며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女 복식 간판’ 백하나-이소희, 배드민턴 왕중왕전 제패

日 마츠야마-시다에 2-0 승
두 번째 도전만에 정상 등극

‘여자 복식 간판’ 백하나(24·MG새마을금고)-이소희(30·인천국제공항) 조가 왕중왕전 격의 대회인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서 두 번의 도전 만에 정상을 제패했다. (사진)

BWF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 백하나-이소희 조는 지난 15일(한국 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마츠야마 나미-시다 지하루(이상 일본·4위) 조와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결승에서 2-0(21-19, 21-14)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백하나-이소희 조는 지난해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 첫 출전해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들은 지난해 대회 결승에서 전칭천-자이판(이상 중국·3위) 조에 0-2(16-21, 16-21)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백하나-이소희 조는 1게임이 접전 양상으로 펼쳐졌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경기 시작과 함께 3연속 득점에 성공한 뒤 9-5까지 리드를 이어갔지만 4연속 실점하며 9-9 동점이 됐다.

이어 한 점을 가져오며 10-9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두 점을 내리 주며 10-11 역전을 허용했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양상 속에 18-19에서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21-19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은 완벽한 백하나-이소희 조의 흐름이었다. 초반부터 앞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 전개되며 8-8까지 접전 상황이 이어졌지만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3-8 리드를 잡았다.

이어 점수를 주고받으며 16-11까지 흐름이 유지된 뒤 한 점을 더 내줬지만 세 점을 내리 가져오며 19-12로 승기를 잡았고, 한 점을 내주고 받는 흐름을 반복하며 21-14로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규빈 기자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부산·광양과 어울림 한마당

배드민턴·탁구 종목 교류전

지역과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체육을 매개체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과 14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4회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교류전이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배드민턴과 탁구 2개 종목으로 개최된 이번 교류전에는 광주와 부산, 광양 등 3

개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드민턴에는 광주공공스포츠클럽과 부산라라클럽, 광양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이 참가해 스태핑과 좌식 종목으로 구분해 실력을 겨뤘다.

탁구에는 빛고을클럽과 서구스포츠클럽, 행복클럽이 참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선보였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교류전에 참여한 동호인들과 뜻깊

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돼 모두가 빛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올해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서울, 대구 지역과 함께 거점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6호골’ 손흥민의 환호

토트넘 홋스퍼 FC의 주장 손흥민이 16일(한국 시간) 잉글랜드 사우샘프턴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 FC와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2분 득점포를 가동한 뒤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선발 출장해 전반에만 1득점과 2도움을 올리며 5-0 리드를 견인했다. 토트넘은 후반 들어 추가 득점과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며 올 시즌 7승 2무 7패(승점 23)를 기록, 10위로 올라섰다.

토트넘 홋스퍼 FC의 주장 손흥민이 16일(한국 시간) 잉글랜드 사우샘프턴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 FC와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2분 득점포를 가동한 뒤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선발 출장해 전반에만 1득점과 2도움을 올리며 5-0 리드를 견인했다. 토트넘은 후반 들어 추가 득점과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며 올 시즌 7승 2무 7패(승점 23)를 기록, 10위로 올라섰다.

AP/뉴시스